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8: 마태 복음 소개, 3부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A. 서론과 종말론적 왕국 [00:00-2:47]

A Combine AD; 00:00- 12:48 **이미 그러나 아직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마태복음이 체계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도와 그 비용,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사의 의로움과 이해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자도나 사도직에서 그리스도의 신학으로 옮겨갔고, 신성함 속의 그리스도와 치료적 치유자로서의 그의 치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모세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의 왕국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마태복음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32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한 마가복음과는 대조적이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유대적인 청중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늘 왕국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늘 왕국은 제 생각에 희망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것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 희망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로 그 희망을 어떻게 구체화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왕국과 그들이 종말론적 왕국을 고려하면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바랐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종말론은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입니다. *에스카톤*은 끝을 의미하고, 종말론은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과 같은 종류의 묵시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왕국은 다가올 왕국과 희망을 제공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기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희망을 가졌을까요?

나. 왕국에 대한 기대 [2:47- 5:11]

첫 번째는 다윗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아들이 왕좌에 앉아 영원히

의와 정의로 그들을 통치할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종말론적 왕국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그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로마인들에 의해 압제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배했습니다--다윗의 아들이 오면 그는 의를 확립하고 로마의 통치를 벗어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아들과 함께 와서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질 메시아적 통치자를 바랐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가져가 실제로 칼을 들고 나가서 일종의 열심당원적인 매우 물리적인 방법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그들의 희망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의 또 다른 큰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창세기 12장)에서 비롯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땅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씨앗,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씨앗, 그리고 축복, 그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보고 이 언약들이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윗의 통치자를 갖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인 그 땅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들은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가올 왕국, 이 종말론적 왕국에 대한 많은 기대가 될 것입니다.

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왕국에 들어가기 [5:11-8:58]

하지만 이 왕국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비드 매튜슨 박사라는 사람에게서 이 개념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브는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문학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지 엘던 래드가 개발한 이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개념의 개념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에는 임박함이 있습니다.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임박했습니다.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임박함, 왕국의 임재는 여기 지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2에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듯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주의 깊게 살피는 데로 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는 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안에 있으며, 그 나라가 임재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왕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변형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왕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박하고 임재하며 이미 임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그 나라의 측면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입구가 21장 마태복음 21:31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왕국으로의 입구는 회개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31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이미, 이미 - 왕국의 이미 있음).”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러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그가 말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그 현존은 세리와 창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니라 그리고 왕국의 비유들 [8:58-12:48]

이제 왕국의 많은 비유가 언급됩니다. 그것들은 왕국 비유라고 불립니다. 어떤 씨앗은 사람들이 걷는 길에 떨어져 짓밟힙니다. 어떤 씨앗은 얇은 흙이나 바위가 많은 흙에 떨어져서 조금 솟아오르지만 뿌리를 내릴 곳이 없어서 말라죽고 시들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잡초가 있는 땅에 떨어져서 잡초가 자라서 아주 잘 자라다가 잡초가 그것을 질식시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씨앗은 좋은 흙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유, 씨 뿌리는 사람 또는 흙은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네 가지 다른 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비유, 이 비유는 지금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국이 이미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복음이 퍼지면서 이것이 지금 왕국이 이미 있는 방식입니다. 그 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밀과 가라지를 가져가세요. 그 사람은 나가서 밭에 좋은 밀을 심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적이 와서 가라지를 심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나

잡초가 돋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아니요. 가라지를 뽑아내면 밭도 손상될 거고, 추수할 때 우리가 뜯어낼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때, 그는 종들을 보내서 밭을 수확하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타버리고 밭은 그의 왕국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밭과 가라지를 섞는 것, 그것이 이미 여기 있는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 아직 오지 않은 왕국의 진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왕국이 있고 아직 없는 왕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다룰 때 - 매튜슨은 항상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라고 대답하면 8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정말 큰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개념입니다. 왕국은 이미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양과 염소에게 와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국 비유는 마태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아직 아닌 측면은 미래의 왕국, 즉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왕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아직 아닌 측면을 얻게 됩니다. 왕국은 아직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와 함께 언급한 끝과 그것이 어떻게 스스로를 이루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신부 들러리들 - 25장에 나오는 신부 들러리 열 명을 기억하십니까? 다섯 명은 지혜롭고 다섯 명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오셨고 다섯 명의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동안 주인이 와서 기름을 가지고 있던 다섯 명의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들어갔고 다른 다섯 명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니,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탐험이나 왕국의 도라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12:48-14:45]

B: EG를 합치다; 12:48-21:15; 자연과 그리스도의 재림

마태복음 16:28의 이 구절은 흥미로운 구절이고, 저는 여러분께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실제로 신약성경에 오류가 있으며, 예수께서 실제로 잘못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요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구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주실
 것입니까? “그가 행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지금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지금 그들
 중 일부에게,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의 왕국이 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음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작가들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놓쳤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 큰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놓친
 것 중 하나이고, 그때 제자들은 - 이것은 초기 교회의 불협화음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28에 대한 가능한 답변-전도, 오순절, 부활 [14:45-18:29]

있고 ,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지상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부터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전파, 그리고 사도행전의 여러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그 중 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과 승천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일어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승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유월절-- 하지만 50일 후에 그들은 오순절을 축하합니다. 오순절 은 5일을 의미하고, 50일 후에 그들은 오순절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경험이 되는 오순절 축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그것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쏘아 올라가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고, 약 50일 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 거기에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을 때, 그것은 왕국의 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국의 측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수업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맥락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원이 아니라, 즉 단어의 역사가 아니라 맥락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어려운 구절을 접했을 때, 무슨 뜻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이 1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수업에서 이미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구분은 원래 성경에 있었을까요?답은 ‘아니요’입니다. 장 구분은 12 세기 나 13 세기, 서기 1200년경에 추가되었습니다. 장 구분은 주교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맥레이 박사님, 어떤 사람들은 맥레이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은 19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맥레이 박사는 주교가 1200년경에 성경의 장을 나누려고 했을 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앞으로 급히 나가기도 하고, 뒤로 급히 나가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장 구분을 하던 주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장 구분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장을 공부할 때는 항상 몇 절을 앞, 몇 절을 뒤를 공부해서 장 구분 자체가 12세기 나 13 세기 에 주교가 만든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경우 주교가 틀렸습니다.

나. 마태복음 16:28-변형 [18:29-21:15]

하지만 어쨌든, 16장 28절로 돌아가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보라”는 1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7장은 변형으로 시작합니다. 변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 일부”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너희 중 일부”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고 말한 다음, 바로 그 뒤에 변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맥상 저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변형일 수도 있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것을 보았을 것이고, 다른 왕국을 상징하는 것, 변형된 몸으로 다가올 왕국을 상징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통찰력을 얻었거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 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왕국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왕국에 대한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닌 측면 - 즉,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지만, 아직 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것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이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미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은 또한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형태에도 다양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잡한 것이고 그것은 주의의 종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성을 너무 강조한다면, 왕국이 여기 있고,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있고 아직 아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많은 소망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왕국의 이미성을 강조 하고 아직 아님 부분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을 쓰고 왕국이 올 때와 그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날짜와 시간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읽고, 항상 이미에 집중하고, “아직은 아닌” 측면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닌” 그 사람들도 잘못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이미와 아직은 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포용되고 붙잡히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H. 왕국의 위치, 이미와 아직, 여기/저기 [21:15-26:14]

C: H-J를 합친 것: 21:15-32:29; **여기저기 왕국**

여기서 우리가 계속 탐구하는 왕국 개념은 단일 블록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왕국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면, 과거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머지 인류에게 거의 제사장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누가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종류의 현존이 있고, 그런 다음 미래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 여기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미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긴장과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는 지금 여기 있고, 아직은 미래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조금 바꾸고, 왕국의 여기저기 측면을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왕국은 여기 있고, 왕국은 저기에 있습니다. 왕국은 여기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 제가 어렸을 때 왕국에 대해 생각했는데, 마치 우리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고, 매튜슨 박사 도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저 밖에 있는 천국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천국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다니고 구름이 하프를 튕기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국에 대한 매우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매우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왕국이 구름 위, 하늘 위,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왕국이 땅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묘사합니다. 그것이 왕국이고,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이사야 2장에서 그는 미래의 왕국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는 "마지막 날에 주의 성전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산들과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아브라함의 일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민족이 와서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는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고 많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그들은 쟁기로 칼을 치고, 가지치는 칼로 창을 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왕국으로, 쟁기로 칼을 치는 곳입니다. 쟁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름을 쟁기질합니까? 하늘 위의 어떤 천상의 농장을 쟁기질합니까? 아니요, 칼을 들고 쟁기질에 넣는 것은 땅을 쟁기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작물을 재배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왕국 개념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은 땅과 정원에 놓여 정원을 가꾸고 돌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왕국이 묘사될 때, 그것은 매우 흠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매우 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에덴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2: 2-4입니다.

I.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할 왕국 - 여기 [26:14-29:00]

이사야 9장 6~7절을 건너뛰어 보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크리스마스 캐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예요. 여러분은 여기 있고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과 같은 것, “그때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세우고 지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오고 이 다윗의 왕국이 통치하고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세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7절. 그리고 11장, 이사야 11장--저는 이 구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11장 6절과 그 이하를요. 여러분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구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것은 구름 속에서 하프를 튕기고 하늘에 있는 우리입니까? 아니요, 이건 늑대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서부에 늑대를 다시 도입했기 때문에 번식하고 있으므로 늑대가 많을 것입니다. “늑대는 양과 함께 살 것이다. 표범은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와 한 살 된 새끼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늑대, 사자,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사자와 그를 이끄는 아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 중 일부는 이런 것들을 통해 중재된 왕국의 개념인가요? “소는 곰과 함께 먹이를 먹고, 그 새끼들은 함께 누울 것이다.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유아는 코브라 굴 근처에서 놀고 어린아이는 독사의 등지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전체에서 해를 끼치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독사, 사자, 늑대, 곰 - 이들은 이 땅의 동물입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산에서 파괴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할 것임이니라.” 이 땅과 이런 종류의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J. 여기와 저기에 있는 왕국에 대한 소망 [29:00- 32:29]

그래서 왕국은 여기 있지만 왕국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 소망을 어떻게 상상합니까? 요한 1서는 아름다운 구절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가 깨끗하신 것같이 자신을 정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비슷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자랐는데,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기억하는데, 그는 매일 우리 집 창문으로 가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늘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평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74년 동안 예수님이 오늘 돌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었고, 그의 삶을

정화시켰습니다. 그가 암으로 쓰러졌을 때를 기억하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고 우리가 집에서 그를 돌보고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고, 지금은 제가
 그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저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희망,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변화시키는 희망. “우리는 그를 볼 때 그와 같을 것이고, 그가 있는 그대로
 볼 것임을 압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다가올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왕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합니다, “잠깐만요, 힐데브란트, 당신은 이
 일이 매우 세속적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는 그때,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정욕이나 삶의 교만과 그런 종류의 것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며, 땅에 있을 것이지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국에 대한 이성 과 거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왕국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왕국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왕국이 오는 것을 보았지만, 왕국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긴장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그의 재림과 다윗의 아들로써 그의 왕국이 세워져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을 취하여 바로잡으십시오. 이곳을 고쳐서 웅웅거리게 하십시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웁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스립니다. 우리 삶에서 한 번은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왕국이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K. Matthew의 시간에 대한 견해 [32:29- 35:30]

D: KP를 합치다; 32:29-53:41; 마태복음의 예언/성취

좋습니다. 이제 다른 측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리뷰만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태오의 이야기를 말했는데, 마태는 체계적입니다. 마가와 관계, 누가와의 관계, 흠어짐과 마태가 누가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의 기적이나 행적을 말하지만, 마태는 예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서와의 유사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직, 마태 가 제자도의 비용,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예수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측면에서 발전시킨 제자도, 그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학,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실제 신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왕이며 다윗의 아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시간으로 이동하고, 결국 책의 히브리어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다음 번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비유대인적 측면의 광범위함, 그것이 일종의 히브리어이지만, 많은 면에서 비유대적이라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는 그 요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책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이 마태오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저 아래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간은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마태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과거에 대한 그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는 구약을 40번 이상 인용합니다. 적어도 40번은 마태가 구약을 언급합니다. 즉, 거의 모든 장에서 구약을 거의 두 번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구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과 신약에서 성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언과 성취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성취의 개념도 매우 복잡하고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훌륭하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구약이 “성취”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예언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예언과 성취는 선지자들이 무언가를 예언했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라는 모티브이고 그것이 신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ㄴ. 예언의 성취-동정녀 탄생 [35:30- 39:02]

우선, 동정녀 탄생 -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매우 흥미로운데, 돌아가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할 것”에 대한 온갖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와 그의 아내, 아니면 거기에 이중 의미가 있었고, 일종의 더 위대한 처녀가 있었을까요? 마리아, 다시 마리아, 마태복음 1:23에서 매우 명확하게 “마리아는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알았다”는 것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였고, 아들을 낳았고, 사실 요셉은 그것에 대해 다소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 여자와 약혼했고 갑자기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는 - 마리아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조용히
 이혼하세요. 그는 큰 소동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
 요셉. 그녀에게서 태어난 것은 성령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예언과 성취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아주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일어난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이 구절에 의미를 언급했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윌슨 박사의
 선지자 과정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흥미로운 예언입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약 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두 도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고든 칼리지에 꽤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미가,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세기 동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중 누구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아는 사람은 아마 두세 명뿐일 겁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세요 . . .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예수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이었고, 사실 여러분은 “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그의 아버지 예새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형제 엘리압도 마찬가지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좋아요, 몇몇 사람을 알고 있어요. 룯과 나오미와 보아스는요? 그 모든 일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죠, 맞죠?”라고 말합니다 . . . 보아스와 룯과 나오미, 엘리멜렉 과 그 사람들에게 대해 기억하세요. 룯과 그 일들의 희망은 베들레헴의 맥락에서 일어났습니다. 룯과 보아스는 다윗의 조부모 또는 그 정도이고, 다윗은 예수의 5대조 . . . 그러니까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이집트 로의 도피 [39:02-43:27]

이제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을 다루고 마태복음 2장의 문맥에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밤에 어머니와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노라.’”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것의 아이러니는 호세아 11장 1절로 돌아가서 문맥에서 읽어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였다.” 그럼 거기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를 기억하십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호세아에게 불충실할 것이었고,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사서 다시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호세아는 로아미, 로루하마라는 자녀를 두었고, 그의 자녀는 “연민이 없다”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호세아의 모든 결혼 비극과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11:1에서 애굽에서 불러 나온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향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식료품점에 가서 아이들이 식료품점에서 부모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부모를 더 많이 부를수록 아이들은 더 도망칩니다. 신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렀고, 내 아들 이스라엘을 불렀고, 더 많이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식료품점에 데려갈 때 제가 발견한 해결책은 아이들을 카트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도망가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사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려나온 것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갑자기 당신은 여기서 성취가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한 유형이었다는 것입니다 . 예수께서는 더 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연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셨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망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 새로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가서 유혹을 받을 것이지만,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예언이나 정확히 성취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메아리나 유형론적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예수님, 새 이스라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는 유형 대 반유형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성취가 의미하는 바는 - 때로는 선지자가 이것이 다윗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정확한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성취가 더 -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 더 평행한 종류의 것입니다.

ㄴ. 예언의 성취-유아 학살[43:27-47:09]

유아 학살 - 이걸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2:18에 나오는 유아 학살 -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마태복음 2:18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였고, 라헬이 자식들을 위하여 울며 위로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자식들이 없어졌음이니라.” 이게 어떻게 성취일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라헬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베들레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창세기 35:19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라헬이 베들레헴 밖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헬을 위해 무덤을 세웠습니다. 라헬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폭파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밖, 베들레헴 밖, 여러분이 오실 때 - 예루살렘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에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을 따라 내려가 베들레헴 옆, 베들레헴 밖 능선에

라헬이 묻혔거나 묻혔다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식들을 위해 울고 있고, 자식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일종의 수호성인, 또는 베들레헴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 바로 밖에 있습니다 - 그녀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의 일종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잠깐만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것은 예수와 헤롯 시대에 유아를 죽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15에서는 라헬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유배되는 자녀들을 위해 울부짖는 것을 말하고, 그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기원전 586년에 들어와 성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라헬이 유배되는 자녀들을 위해 울부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35장에서 베들레헴 밖에서 죽는 라헬의 메아리가 들리나요?”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로 넘어가서,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유배되어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사용했고, 이제 같은 구절이 예수에게 다시 반복됩니다. 예수 시대에 라헬이 다시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두 아이 밑에서 유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는 것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유배되어 예수에게로, 그리고 유아들이 죽는 것까지 성경을 통해 올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를 통해 올려 퍼지는 예고, 징조의 의미에서 성취되었고,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라헬이 그곳에서 죽고, 아이들이 유배되어 죽고, 라헬이 유배되어 가는 자식 때문에 울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죽을 때 예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라헬이 울고 있습니다.

0. 유대교의 시간관 [47:09- 48:58]

성경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순환이 있는데,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취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순환적 성격이 있고, 심지어 전도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표징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 사위는 종종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세대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 세대에서도 일어납니다.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역사가 끝나고 있다는 선형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순환에서 순환적이기 때문에 순환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나선과 같고 끝, 운명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시간에 대한 순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순환, 순환, 순환이며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인 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아리, 이 메아리치는 성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취”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성취, 예언, 그리고 성취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렇다는 관점에서 성취입니다. 일종의 비교이고 그것이 성취(유형/반유형)입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관점에서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고 창세기에서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메아리치고 메아리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위해 우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ㄴ. 시편 22편의 예언과 성취 [48:58-53:41]

다른 예언이 있는데, 저는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스가랴 11:12에서 유다가 언급되고, 메시아가 은 삼십 개에 배신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마태는 스가랴 11장에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가 지적인 그 사람이 배신의 대가로 받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군인들: 이것은 시편에서 아름다운, 사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구절입니다. 시편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잠깐만요, 시편은 실제로 예언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편에서 일어나는 성취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지 봅시다. 시편 2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군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살을 찢고, 먹이를 찢으며, 입을 크게 벌려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모든 뼈가 어긋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모든 뼈가 어긋났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으로 변했습니다. 내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찢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고, 이것은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쓰고 있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찢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께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일까요? 다윗은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 성취. 네, 다윗은 예언자일까요? 아니요, 당신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뼈와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옷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과 발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래서 당신은 “다윗이 그것을 이해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저는 다윗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는 것 같다는 이러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원전 1000년경에 역사에서 약 1,000년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투쟁을 보고, 그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투쟁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애가에서 그것에 대해 씁니다. 그는 “내 손과 발이 찢렸고, 그들은 내 옷을 제비 뽑았고, 내 혀는 내 입천장에 붙었고, 사람들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즉시,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어서 그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오는지 기다려 보자.”라고 말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 그들은 그가 엘리야에게 와서 자신을 구하라고 부르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22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22편의 애가를 겪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다윗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천 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취로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셨고 다윗은 천 년 전에 그것을 느꼈고 너무나 놀라운 이 묘사를 썼습니다.

Q. 마태복음에 대한 구약의 영향 [53:41-56:26]

마. QT를 합치면; 53:41-68:40 ; 마태 복음과 구약성경; 현재와 미래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따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이 40개나 있습니다. 마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유대성은 구약의 많은 인용문과 인용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그는 구약에서 많은 것을 끌어내어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고 있는데,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의 성취에 대해 말합니다. 성취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다른 방식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윌슨 박사는 그의 책인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고전적인 텍스트로, 로마서 9장 이하에서 교회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고 설명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야생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초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는 "교회"라는 단어를 두 번 언급한 주요 인물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교회를 언급하지만, 그는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마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라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사렛인과 같은 새로운 종파일 뿐일까요? 우리는 이제 유대교의 또 다른 종파인 나사렛인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새롭고 다른 것일까요? 따라서 초기 교회는 유대성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해 고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는 교회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약성경이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세운 기초라고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바울, 사도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유대교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고든의 필립스 박사는 초기 유대교를 연구했고, 그것은 실제로 기독교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던 초기 시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마태는 구약성경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성취 모티브의 풍부한 배경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R. 마태의 이야기: 현재 - 5가지 설교 [56:26-58:51]

지금 당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다섯 가지 설교를 다룹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다섯 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책 전체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산상수훈은 세 페이지 분량입니다. 빨간 글씨 성경이 있다면 말입니다. 세 페이지 분량의 빨간 글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온갖 저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국의 비유, 제 생각엔 13장에 있는 비유가 일곱 개 정도인데, 예수께서 씨앗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열한 알의 비유, 그리고 다른 여러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18장은 겸손과 용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규율입니다. 교회에 규율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대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대일 상황을 듣지 못한다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과 마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두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 전체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파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규율도 거기에 설명되어 있고, 겸손과 용서도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묘사하시고 떠나십니다. 아시다시피, 컵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컵의 안은 몇 주 동안 거기에 있던 커피 찌꺼기로 인해 모두 변형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십일조를 바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줄 수 없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그런 다음 설교의 올리브산은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다룰 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위대한 장인 설교의 올리브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 미래-우화와 에클레시아 [교회] [58:51-62:42]

이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국의 비유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왕국의 비유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미래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농부는 자신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빌려줍니다. 이 소작인들은 소작농입니다. 그들은 농부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하고, 그들은 농부에게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작료를 받으러 몇몇 하인을 보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소작료를 받으러 나간 사람들을 때립니다. 사실 그들은 몇몇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인 농부가 “글쎄요, 그들은 내 아들을 존경할 것입니다.”라고 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유는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흔하다고 배웠습니다. 매우 사실적입니다. 이게 사실적일까요? 제 말은, 당신이 농부라고 하고, 땅을 빌려주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하인들이 당신의 하인 몇 명을 때리고 죽였다면, 당신은 아들을 혼자 보내서 이 소작인들을 마주하게 하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연민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을 보냈고, 그들은 아들을 보고 "이봐, 아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상속 재산을 차지할 거야. 우리 것만큼이나 좋잖아."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들을 죽였고, "그 주인이 그 소작인들에게 무엇을 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울고 이를 갈 것입니다.

소작인에 대한 비유는 아들을 죽이고 상속 재산을 훔치는 것을 묘사합니다.

갈등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런 비유 중 일부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이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복음서이다. *Ekklesia* 는 그리스어로 "밖으로"를 뜻하는 "탈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다음 *klesia* 는 "불러내어졌다"를 의미하므로 *ekklesia*는 "불러내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체로 불려나온 사람들이고, *ekklesia*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분리된 불려나온 공동체입니다. 마태는 "너는 내가 세울 베드로라... 내 무엇? *Ekklesia*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는 미래에 이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바라보고 설명합니다. *ekklesia* , “불러내어진 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파문할 때 마태복음 18:17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만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매우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는 이미 시대의 끝과 시대의 끝에 있을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많은 미래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열 명의 신부 들러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명은 현명했고, 다섯 명은 어리석었습니다. 다섯 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다섯 명은 기름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오시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점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주인이 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T. 마태의 미래 - 올리브산 설교 [62:42- 68:40]

그래서 마태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올리브 산 설교와 여기서 미래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올리브 산 설교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시자 제자들이 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두 번째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스루바벨의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을 지었지만 정말 작았고 헤롯이 와서 성전을 웅장한 구조물로 바꾸었고 재건은 30-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사흘 안에 파괴하고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에게 사용한 비난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에게 보여주고 이 모든 건물에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돌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온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전을 빼앗고, 성전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장소를 차지하면 무엇을 합니까? 고대 세계에서 도시를 차지하면 도시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일입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인 다음 버려야 합니다. 폐허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고 애곡의 벽이나

서쪽 벽이 있는 곳 바로 남쪽에 있는 남쪽 벽 발굴지를 가면 약 100야드 가면 남쪽 벽 발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약 70피트 정도 떨어져 떨어진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위는 성전 산에서 밀려나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떨어졌을 때, 로마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로마 도로가 바닥을 따라 지나가고, 이 바위가 떨어졌을 때 - 이 바위는 길이 8피트, 너비 8피트, 높이는 5~6 피트인데, 거대한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70피트 떨어지면 로마 도로를 치고 뚫는 엄청난 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로마 도로는 로마 도로가 건설된 방식 때문에 놀랍습니다. 이 바위가 도로를 뚫었고, 성전 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던져진 바위 더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리브 산 설교에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평가들은 성경에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1. 기적.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적을 제거하고 전설이나 신화로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이 제거해야 할 또 다른 것은 누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느님만이 예언을 할 수 있고,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700년 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700년은 예언을 하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예언입니다. 모든 돌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 죽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서기 32년경에 죽으십니다. 성전은 언제 파괴됩니까? 40년 또는 38년 후에야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예언을 하셨으므로 비평가들은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vaticinium post eventu* 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건 이후 (또는 사건 이후)에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사건 이후에 예언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이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마태나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것이고, 다시 예수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예수의 입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이후에 있었고 예수의 입에 다시 넣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38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돌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가 올리브 산 담화에 들어가 미래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서기 70년에 티투스가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합니다. 티투스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평평하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은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곳에는 유대인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기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돔 오브 더 록이 성전 산에 있는 신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산 꼭대기에 신사가 있습니다.

V. 올리브산 설교 - 거짓 선지자들과 박해 [68:40-72:59]

F: V-X 결합 ; 68:40-78:03 끝; T/F 제자들,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택함받은 자들조차 속이기 위해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조차 속을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인가? 이게 예수인가? 이게 예수의 재림의 선구자인가? 이 사람들은 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으로부터 온 표적과 기적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택함받은 자들을 속일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담론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느 세대에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습니까? 지금 세대입니다. 기독교인은 전 세계적으로 살해당하고 있으며, 저는 미국에서 우리가 호화로운 집에 앉아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종교의 자유가 우리 정부에 의해 공격받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우리 나라 외부의 세력, 예를 들어 기독교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을 침투하려는 세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 심지어 죽음. 이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와이클리프 성경 번역자들을 알고 있다면, 제

생각에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 와이클리프 성경 번역자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간 친구 조엘 할로우가 있는데, 이 부족 집단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언어는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쓰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와이클리프 성경 번역자들은 언어학 여름 연구소와 고든 대학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언어학자 중 한 명인 케네스 파이크가 있습니다. 고든에는 그의 이름을 딴 파이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와이클리프 성경 번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언어를 해독하는 방법과 이 부족 집단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자신의 언어를 읽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끝이 올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이클리프 성경 번역자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번역할 것이 많지만,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보리라”(24장 14절). 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좋아요, 힐데브란트, 이 수업을 듣는 동안 마카비서를 읽게 하셨잖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주현절에서 - 셀레우코스 왕조를

기억하세요 - 제단에 돼지를 바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성전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어떻게 개념화하든, 그 사람이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것에 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그 지역의 거룩한 것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언급합니다.

ㄴ.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72:59-76:51]

그럼 이거요. 이것도 꽤 흥미로운데요: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느니라.” - 마태복음 24:36 . 작년에 캠핑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작년에 2011년 5월 20일에 예수님이 2011년 5월 20일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글썄요, 당연히 지금은 2015년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놓쳤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 예언자일까요? 네, 그런데 “아,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하고 그는 떠나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나니 - 누군가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안다고 말한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안다고 말한다면, 아들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저는 예수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히브리어를 할 줄 아셨나요? 그가 태에서 나온 지 8일째 되었을 때, 그는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나요? 아니요.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아람어를 배우고, 그리스어를 배우고, 그가 아는 다른 언어들을 배웠을까요? 적어도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두세 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언어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으며, 인간으로서 예수는 아는 것에 제한을 받았고, “오직 아버지만이 이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요일과 시간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조차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 날 또는 그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데 조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너무 구체적으로 예측할 때마다 매우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추측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모든 율법이 달려 있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여기 있는 “뒤에 남겨진”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태복음 24:40입니다. 팀 라헤이가 쓴 *뒤/뒤에 남겨진* 시리즈를 읽어본 사람 있나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종류의 추측으로 기본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환상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요점은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30-34는 무엇이고, “이 세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보는 세대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이든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가 사는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의 세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황폐의 가증한 것;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 이 세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끝을 볼 것입니다.

X. 결론 [76:51-78:03]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신의 왕국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나간 타이밍, 구약과의 통합, 현재, 예수님의 다섯 가지 설교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천국과 기본적으로 올리브 산 설교, 그리고 아무도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명의 현명한 신부 들러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히브리적 특성과 이 책의 더 문학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의 마지막 네 가지 요점인 히브리적 광범위성과 증거,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Dave Clemmer가 필사,

Ben Bowden이

편집, Ted Hildebrandt가 Rough가 편집